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5월 5일
제1999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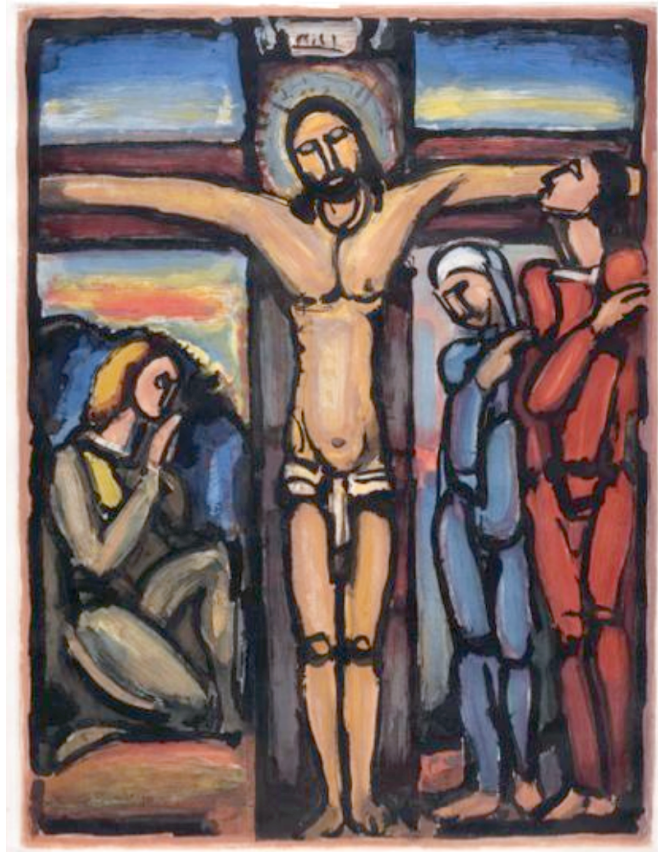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1요한 4,9-10)



〈십자가의 그리스도〉, 조르주 루오

부활 제6주일 (나해)

제 1 독서 사도 10,25-26.34-35.44-48 |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렸다.

화답송 시편 98(97)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 독서 1요한 4,7-10 <또는 1요한 4,11-16>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 15,9-17 <또는 요한 17,11c-19> |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 ¹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 ¹¹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 ¹²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¹³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¹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 ¹⁵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 ¹⁶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 ¹⁷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사랑은 너무나 막연하고 다양하며 개별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 것처럼’이라는 예를 들어 알려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아버지께서 하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입니다.

제2독서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랑’이고, 이를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존재를 ‘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랑은 ‘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를 오늘 독서와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늘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고, 타인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즘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오늘 복음이 보여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급급하기보다, 거저 내주고 상대를 살리려는 진심에 충실할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사랑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축하합니다!

이동한(다니엘) 신학생 시종직, 이호빈(바오로) 신학생 독서직 수여식



▲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왼쪽 끝)과 이호빈 바오로 신학생(오른쪽 끝)

본당의 이호빈 바오로 신학생(Mount St. Mary Seminary)의 독서직(Ministry of Lector) 수여 미사(4월 19일)에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과 가족 그리고 교우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또한, 4월 20일에는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Mount St. Mary Seminary)의 시종직(Ministry of Acolyte) 수여 미사가 거행되어 이태섭 요한 사도 신부님과 가족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 이호빈 바오로 신학생



▲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과 이태섭 요한 사도 신부님

5월 성모성일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굽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1 제85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5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김영희 모니카 (571) 338-8844
-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비자 모집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5월 5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2024년 WorkCamp 기금 마련 Car Wash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 (5월 5일(일) 비 예보 때문에 5월 19일로 연기됨)
- 장소 : 하상관 뒤편 주차장 • 세차비 : \$15
- 문의 : 한 모니카 (571) 331-0391

4 KoC 월례 회의

- 일시 : 5월 5일(일) 오전 11:30 (B-2)

5 칠순(고희) 감사 미사

- 일시 : 5월 9일(목) 오후 7시
- 김영진(바르나바)신부, 배은하(타대오)신부, 박호영(베네딕도)신부 공동 집전
- 제2의 청춘이라고 불리는 칠순(고희)이 되시어 지금처럼 멋지게 자리매김을 해 주시는 분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희연 미사를 봉헌하려 합니다.
- 문의 : 강세원 바오로 (703) 489-3938

6 2024년 동중부 성령쇄신 지구대회

- 일시 : 5월 11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성당)
- 주제 :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로마 5,2)”
- 강사 : 김영진(바르나바)신부, 배은하(타대오)신부, 박호영(베네딕도)신부, 김영태(토마스)신부
- 회비 : \$20 (점심 제공)
- 문의 : 박인옥 수산나 (703) 909-2980

7 유아세례

- 일시 : 5월 11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소공동체 모임의 날

- 일시 : 5월 11일(토)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눕니다.

9 단체장 회의

- 일시 : 5월 12일(일) 오전 11:30 (A-1,2)



5월 성모성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은총의 삶을 통해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며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순명의 삶이 우리의 삶이길 기도합니다.

성모의 밤 | 5월 31일(금) 7:30pm

10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5월 12일(일) 오전 11:30 (하상관)

11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주세요

-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사 전, 후에 성당과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린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ishop/public-messages/2024/plenary-indulgence-opportunity-for-visitors-of-the-cathedral-of-saint-thomas-more/>

교구 황금희년 축제



- 일시 : 6월 8일(토)
- 장소 : Warren County Fairgrounds in Front Royal
- 교구설정 50주년 축하행사로 수천 명 참석 예정
- 주교님 미사와 헤드라이너 Soul/Gospel Indie 아티스트 Jervis Campbell과 컬트 록밴드의 라이브 음악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 행사는 오후 3:45부터 시작되며 오후 9시 불꽃놀이로 마칩니다. 무료식사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fest/>

교중미사 예불봉헌

05/05 이번 주	페어팩스 3-1,2구역
05/12 다음 주	페어팩스 3-3,4구역

성당 청소

05/05 이번 주	버크 구역
05/12 다음 주	애난데일, 페어팩스 1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YO SUMMER CAMP

• 일정 : 2024년 7월 25일(목) - 28일(일)

• 장소 : Prince William Forest Park

• 등록 : 6월 16일(일)까지, 주일학교 교무실

• 참가비 : \$150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4월 28일(부활 제5주일)

봉헌금	\$ 7,366.00
교무금	\$ 3,216.63
교무금(신용카드)	\$ 2,260.00
2차 헌금	\$ 2,606.00
감사 헌금	\$ 310.00
온라인 봉헌	\$ 1,890.00
합계	\$ 17,648.63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5월 09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5월 12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바다강 신부의 맘고생 크림 케이크
[제19회] '의미를 간직한 삶'
-조명연 마태오 신부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